

기고

글. 오동희_ Oh,Dong-hee / KIRA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및 제35차 ARCASIA이사회 참가 보고서

The 16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35th ARCASIA Council Meeting Report

1. 참가 개요

장 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
기 간	2014년 6월 23일 ~ 30일 / 7박8일
주요행사	- 이사회 및 임원회의 - 위원회별 회의 / 건축교육위원회, 건축실무위원회, 친환경위원회, 사회적책임위원회, 펠로우쉽회의 - 아시아 건축사대회와 학생잼보리 등 행사
부대행사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PAM) 행사(전시 및 각종 포럼)
대 표 단	김영수 회장, 심재호 부회장, 김지덕 고문, 오동희 국제위원장, 이근창·신준규·봉주희 국제자문위원, 김성민·강호원 국제위원, 이승호·정찬호 학생대표 (학생잼보리 참가)
주요일정	6월 23일 ARCASIA 펠로우십 골프 대회 6월 24일 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환영 리셉션 6월 25일 ARCASIA 이사회 제1일, 칵테일 리셉션 6월 26일 ARCASIA 이사회 제2일, ARCASIA 건축상 시상식 6월 27일 아시아건축사대회 포럼, 제1일, 갈라디너 6월 28일 아시아건축사대회 포럼, 제2일, 우정의 밤 6월 29일 사회적책임 건축심포지엄 ※ 6월 23일~28일 : 학생 잼보리

2.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2.1 배경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1967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CAA에서 최초 논의가 되어 1970년에 6개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으로 창설된 후 지금은 아시아 지역의 1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명실공히 아시아 건축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1988년과 1999년에 서울에서, 2008년에 부산에서 각각 ARCASIA 대회를 유치하고 2007~2008년 회장(이근창)을 배출하는 등 주요국가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2.2 행사개요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더불어 35차 이사회(Council meeting)는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가 주관을 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주요행사(일정표 참고)와 함께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가 자국 건축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PPF(Practical Practice Forum), GBF(Green Building Forum), KLDF(Kuala Lumpur Design Forum)가 6월 25일~26일 양일간 개최되었고, Archidex14 건축전시가 6월 25일~28일 열려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2.3 주제

이번 제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주제는 “Rejuvenation(되젊어짐, 회춘, 원기회복)”으로, 아시아 도시 및 세계 각처에 이미 노쇠했거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적인 개발에 대해 미래 유산으로서의 건축의 가치를 진지한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려는 목표 아래 아시아 19개국의 회원단체 대표와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개선점을 찾아내고, 아울러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사례에 대한 강연을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주제, 'Rejuvenation'

3. 회의결과

3.1 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ARCASIA에는 임원회의를 비롯해 각 건축실무위원회(ACPP), 건축교육위원회(ACAE), 친환경건축위원회(ACGSA), 사회적책임위원회(ACSR)와 펠로우쉽위원회 회의가 있다. 이사회 하루 전 각 분야별로 모여 준비된 안건을 갖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3.2 임원회의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이근창

- 1) 제7차 ARCASIA 임원회의는 6월24일 KLCC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임원회의 안건과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록 추진이 특별한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 2) 재무 보고에서는 홍콩 상하이은행(HSBC)에 ARCASIA 계좌 명의 변경의 건이 홍콩건축사협회와 필리핀건축사협회의 협조로 완료되었고, 인터넷으로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음이 보고되었다. 현재까지의 입·출금 보고와 함께 2015년 예산도 원안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일부 회원국의 송금료와 송금 시 문제가 된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의 회비는 이사회 회의 전 해당국에서 적절히 처리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3) Zone별 부회장 보고는 회원국 행사의 보고가 아닌 Zone 내의 공동관심사와 대응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Zone "B"의 부회장인 필리핀의 에드릭 마르코는 ARCASIA 로고 상표등록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제 경비를 보고하였다.
- 4) Heritage Book과 History Book에서 인도/파키스탄과의 국경선 표기는 UN 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내용 중 철자와 문장이 어색한 부분은 자문위원인 파키스탄의 아킬 빌그래미가 정리하여 차기 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5) ARCASIA 재정과 현 회장을 지원하는 스폰서 재정은 구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금회 거의 모든 행사의 경비는 프레티니엄 스폰서인 ROCA, GROHE, SIKA, DULUX, FERUNI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추후 잔액이 남는 경우 차기 회장에게 이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6) ARCASIA의 웹사이트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이외 국가에서도 접속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 정보 중 회의록은 회원국에서만 참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7) 필리핀에 설립된 ARCASIA 법인은 차기 회장 취임에 맞추어 제반서류를 갱신하기로 하고, 홍보용으로 제작한 ARCASIA 다큐멘터리는 건축사의 역할보다 조직구성과 역사 중심으로 한 최종

- 안으로 웹사이트에 등재하였다. 더불어 필리핀에서의 발족 당시 정신을 담은 가사를 기초로 태국의 스미스 오바앗이 작곡한 ARCASIA 송의 초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8) ARCASIA 건축상과 Emerging 건축상은 각 카테고리별로 2차 심사가 완료되었고 최종발표는 행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 9) 각 지역 및 국가 간 체결된 MOU는 단독국가와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UIA, AUA, ACE, MASA와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AIA와는 더 이상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다. MOU를 요청한 VFA(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의 건축사협회가 구성된 유럽 내의 지역단체)와는 그 조직의 구성과 활동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한 차후에 그 체결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다.
 - 10) 정관과 핸드북, 운영매뉴얼에서 문구와 정의가 모호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하기로 하였다.
 - 11) ACASIA의 UIA 더반 Booth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전에 오픈하도록 하였다.
 - 12) 각 위원회의 보고는 회의내용이 수정 없이 통과되었고, 단지 위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인 Inter Committee는 필요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13) 이번 이사회 이후 남은 임기 5개월간 있을 임원회의와 인계·인수를 위한 회의가 늦어도 내년 1월중에 갖기로 하였다.



OB Meeting 장면

3.3 건축교육위원회 : 국제위원장 오동희

- 1) 각국 건축교육 활동
 - 태국에서 제안한 TOY Architecture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 2) ARCASIA 버추얼건축학교(Virtual School of Architecture)
 - 아시아 각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공간 속의 건축 스튜디오 "ARCASIA Pavilion Design Workshop"이라고 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8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파키스탄, 태국, 스리랑카, 마카오)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함.

- 3) ARCASIA 프라이즈(Arcasia Prize in Concept paper)
 - ARCASIA 회원국 및 기관에 속한 35세 이하의 젊은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여행과 연구장학금을 제공하는 건축상으로,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 4) 타임라인차트 개정(Architectural Timeline Chart 2nd Edition)
 - 자료제공을 위해 각국의 협회가 협력하기로 함.
- 5) 크로스보더 인턴십(Cross Border Internship)
 - ARCASIA가 추진하는 젊은 건축사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추진하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고 프로그램 참여희망 설계업체 조사를 추진하기로 함.
- 6) 건축학교 디렉토리(Architectural School Directory)
 - 자료제공을 위해 각국의 협회가 협력하기로 함.



ACAЕ 각국 대표단

3.4 건축실무위원회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신춘규

- 1) 주요 안건
 - ARCASIA 실무 매뉴얼/핸드 북
 - ARCASIA 실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ARCASIA CPD 가이드라인
 - ARCASIA MRA 가이드라인
- 2) 결론
 - 토론이 아닌 실제 나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핸드북이 필요
 - 관을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단체별로 관과 협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함.
 - 일단 사례조사를 통해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취합하는 것을 1단계로 보고 사례를 모으기로 함.
 - 10월이나 11월 인도나 인도네시아 중 가능한 곳에서 working

group 회의를 가지고 취합하기로 함.

- 실무위원회의 토론 및 발전 내용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대표 또는 옵서버가 최소 2년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어야 함을 당부함.



ACPP 회의장면

3.5 친환경건축위원회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심재호

- 1) 참가국의 단체별로 Country report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차기 의장인 방글라데시의 Qazi M Arif의 2015~16년 임기 동안의 중점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음. 대한건축사협회는 왕정환 친환경위원장이 작성한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대응”의 내용을 위주로 발표하고 올 10월 14일 시행기로 되어 있는 건축협정의 내용을 친환경설계의 측면에서 설명하였음.
- 2) UMA: 친환경 Roundtable 회의를 다카와 싱가포르에 이어 유치할 의사를 표명함.
- 3) 차기 의장은 친환경위원회의 향후 과제로
 - 각국별로 조상으로부터 전래되어온 친환경에 대한 Know-How를 조사, 취합하여 ARCASIA의 유산으로 보존.
 - 1년에 한 번씩은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웹사이트를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 Resilience, Climate Change, Security 등의 다른 환경적 요소들을 융합.
 - 출판물 간행
 - 향후 페이스북을 소통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IAP가 주관하도록 함.

3.6 사회책임위원회 : 국제위원 김성민

- 1) 사회책임과 건축에 관한 국가별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 필리핀 : ARCASIA의 Emergency Center를 구축하고 프랑스 및 스웨덴과 협력관계 수립, 재난에 대비한 건물 가이드북을 만화로 발간, 태풍으로 소실된 초등학교 재건립(필리핀건

축사협회 공동 후원).

- 일본 : 과거의 대형 지진과 그 이후의 재건 기간에 관한 자료 분석
 - 태국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타운하우스와 가로계획 및 일반인에게 장애인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개
 - 한국 : 김성민 위원이 국토부의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대한건축사협회의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남북 교류협력위원회 설립에 대하여 설명
 - 네팔 : 전통건축물의 보존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 인도 : 사회책임에 대한 건축사, 정부의 역할 및 젊은 건축사 포럼
 - 파키스탄 : 사회책임에 대한 역사적인 선각자의 철학과 사회와 기업의 책임
 - 방글라데시 : 홍수에 대한 재난방지, 에코하우스 및 홈주머니를 이용한 주택 소개
- 2) 사회책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ARCASIA 건축사의 선언문을 작성하여 각국의 협회에서 인지하도록 소개



ACSR 각국대표단

3.7 Fellowship Meeting :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김지덕

- 1) 우리가 어떻게 아시아건축사대회를 더 좋은 틀 안에서 지속할 것인가를 논의함.
- 2) ARCASIA는 National Institute로서 매년 참가의 의의가 있고, 모든 행사에 각국의 자격인증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함.
- 3) ARCASIA 원래의 참가조항 등을 계승,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젊은 건축사들로 하여금 ARCASIA를 계승, 유지, 발전시키도록 함.

3.8 이사회(Council Meeting) : 국제위원장 오동희

아시아건축사연맹 제35차이사회가 6월 25일~26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어 회원국 19개국 중 18개국의 대표단이 참석, 아시아의 건축사에 관련된 제반 현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수 회장과 오동희 국제위원장이

공식대표로, 심재호 부회장을 비롯한 김지덕, 신춘규, 김성민, 강호원 국제위원 등 5명이 옵저버로 참석하였다. 회장단에는 이근창 자문위원이 ARCASIA 어드바이저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 회원단체는 한국(KIRA), 일본(JIA), 중국(ASC), 몽골(UMA), 홍콩(HKIA), 마카오(AAM), 싱가포르(SIA), 태국(ASA), 말레이시아(PAM), 필리핀(UAP), 라오스(ALACE), 베트남(VAA), 인도(IIA), 파키스탄(IAP), 방글라데시(IAB), 스리랑카(SLIA), 인도네시아(IAI), 네팔(SONA) 등 총 18개국과 이번 대회에 불참한 부탄을 포함해 총 19개국임.

1) 세션-1: 6월 25일 09:00~10:30

- 개회 선언에 앞서 35회 이사회를 축하하는 ARCASIA 기(Flag)를 공포하고 이어 탄페이팅 회장은 참가국 대표에게 회원증을 수여하였는데, 우리 협회는 김영수 회장이 수여받았다. 탄페이팅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회장단과 자문단을 소개하였는데, 우리 협회에서는 이근창 자문위원이 ARCASIA 고문으로 참가하였다. 처음 참가하는 회원국에 대한 회원증서 전달 및 차차년도 개최지로 선정된 홍콩(HKIA)에게 증서를 전달하였다.



ARCASIA Council Meeting 장면

2) 세션-2: 6월 25일 10:45~13:00

- 탄페이팅 회장은 이번 이사회의 중요 안건을 상정하고 순서에 입각해서 논의를 끌어감. 2013년 네팔, 카투만두에서 개최되었던 제34회 아시아건축사연맹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 재무 보고(홍콩 상하이은행에 ARCASIA 계좌의 명의 변경 완료, 인터넷으로 출금 가능토록 조치), 회장 보고(지난해 이후 활동 및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 등), 부회장 보고(A, B의 2개 Zone 부회장이 지난해 이후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에 대해 승인 받음. 국가별 단체 대표가 차례로 각국의 현안과 계획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함. 한국은 오동희 국제위원장이 발표하였음.

3) 세션-3: 6월 26일 09:40~

- ARCASIA 프로젝트 : History Book(e-copy 작성), 기금 및 스폰서십, ARCASIA 웹사이트 & 페이스북(홍보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 ARCASIA CI System(최종안 승인), ARCASIA Documentary(시사회 진행), ARCASIA 본부 건립(안건 삭제), 태풍 하이옌 지원(재난구호기구 'UAP Emergency Architects' 발족 설명), Patent pending Logo(특허 출원 소 개), ARCASIA Handbook 및 운영매뉴얼 개정, 회칙 개정

4) 세션-4:

- Architecture Asia Magazine, ARCASIA Awards, MOUs Update, Renewal, New MOU, New membership/ Brunei, Cambodia, Myanmar

5) 세션-5:

- ACA Forum

6) 세션-6:

- Committee Reports : 6월 24일 개최되었던 ACAE, ACGSA, ACPP, ACSR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각 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요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승인을 받음.

7) 세션-7:

- 부회장 선거 : Zone-A는 Janhangir Sherpao(파키스탄), Zone-B는 Endy Subijono(인도네시아), Zone-C는 대한건축사협회 심재호 부회장이 선출, 확정됨. 3인의 부회장은 차기 회장 Satirut Nui Tandanand(ASA)를 보좌하여 2015~16년 활동하게 됨.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 신춘규 이사가 지난 카투만두 회의에서 ACPP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차기 회장단으로 활동하게 될 것임.



ARCASIA Council Meeting 차기회장단

- 차기 회장 인사말 : ARCASIA 차기회장인 Satirut Nui

Tandanand는 현 회장이 추진해 왔던 중점추진사업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Young Architect를 위한 프로그램 및 새로운 위원회의 구축, Faculty Training Program, ARCASIA criteria for Architectural School, 각 위원회 추진사업 지원, UIA와 건축전시회 교류 등에 대하여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음. ARCASIA Prize와 관련하여 Young Architect의 연령을 45세 이하로 하자는 의견과 40세 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40세 이하로 결정하였음.

- 필리핀 태풍 피해에 대한 현황 설명 : 필리핀은 태풍 피해 후의 ARCASIA 및 각국의 후원에 대한 감사를 공식적으로 전하고, 현재까지의 복구 상황 및 향후의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특히 피해 초기에 KIRA로부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감사함을 표하고, 이로 인해 추후의 지원에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함.
- 이근창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자문위원이 ARCASIA 회장단 고문의 자격으로 ARCASIA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받음.

3.9 제2회 사회책임건축 심포지엄

(2nd ARCASIA Committee on Social Responsibility(ACSR) Architecture Symposium 2014) : 국제위원회 심재호, 신춘규, 김성민 위원

- 세션1. 재난 방지, 준비 및 감소를 위한 건축
- 세션2. 공공주택 및 살기 좋은 환경
- 세션3. 유니버설 디자인 - 접근성

4. 제16차 Asia Congress of Architects : 국제위원회 김지덕, 신춘규, 오동희, 김성민 위원

- 포럼은 격년으로 개최되고, 연사들을 초청하여 이를 동안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주제는 'RejuveNATION ; 되 젊어짐, 회춘, 원기회복(강·토지의 회복)'으로, 11명의 연사가 이와 관련된 작품들을 발표함. 한국에서는 국제위원회 봉주희 위원이 "세계평화공원으로 제안한 DMZ"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이 시대 건축의 중요 이슈인 Rejuvenation에 대하여 이미 많은 관심이 있어 왔고, 또 진행 중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인류가 존속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물질적인 소비와

에너지의 고갈, 그리고 이에 따른 지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주제는 완결적이지 않으며 늘 현재진행형의 상황에 놓여 있고, 건축은 이 숙제를 늘 안고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천명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ASIA Congress of Architects 행사장 전경

5. ARCASIA 건축상 : 국제위원장 오동희

- 600여명이 등록을 하여 276개의 작품을 제출했으며, 골드메달을 수상한 나라를 보면 중국이 4개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2개,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파키스탄이 각 1개씩 수상하였다. 한국은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 중에서 선별해 제출한 결과 산업건축물 카테고리에서 임재용 건축사의 '태평양계약 헬스케어캠퍼스'가 골드메달을, 공공건축물 카테고리에서 김주경·최교식 건축사의 '슬로우아일랜드 여행센터'가 우수상을 받았다. 특이할 만한 점은 중국이 70여점 이상의 작품을 제출하여 12점의 작품이 골드메달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RCASIA AWARD 수상자와 함께

6. 기타 : 국제위원장 오동희

- 1) 베트남건축사협회(VAA)과 MOU체결
 - 2014년 6월 25일 김영수 회장, 심재호 부회장, 김지덕, 이근창 자문위원 외 4인(KIRA)과 NGO DOAN DUC 부회장, VUONG DAO HOANG 외 2인(VAA)이 양국 간의 호혜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교류하기로 함.
- 2) 라오스건축사협회(ALACE)와 Accord 및 Working Plan 갱신
 - 2014년 6월 27일 대한건축사협회와 라오스건축사협회는 2013년에 논의되고 2014년 1월에 합의되었던 내용에 따라 MOU 및 Working Plan을 갱신하였음.



ALACE와의 MOU 갱신

- 3) 몽고건축사협회(UMA)와의 간담회를 통한 협의
 - 2014년 6월 일 김영수 회장과 심재호부회장(KIRA), Bat Dash(UMA)는 2014 UMA 건축사대회의 공식일정에 참가하기로 하였음. 9월 중에 UMA와 북한 간의 MOU 갱신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예정으로, UMA는 KIRA의 북한건축사협회와의 접촉의사를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10월 초 ASC(중국건축학회)의 몽골 방문시 KIRA와 북한건축사협회를 함께 초청하여 4자 회의를 하는 방안이 논의됨. KIRA는 UMA가 이 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음. KIRA의 개성공단 건축자문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UMA가 북한의 건축법 및 제도에 대한 자료정보 수집에 협력을 요청하였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효한 Working Plan에 대하여 보완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였음. ㉮